광주·전남 주담대 급증…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우려

광주1676억원·전남 1183억원 등 3년 4개월 만 최고 갱신
증가율 광주 7%·전남 7.2%로 전국 평균 5.6% 훌쩍 넘어
5대 은행 주담대출 잔액은 451조4558억원…증가폭 줄어

광주·전남지역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째 증가하며 3년 4개월 만에 최고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4월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광주 1676억원·전남 1183억원 등 2859억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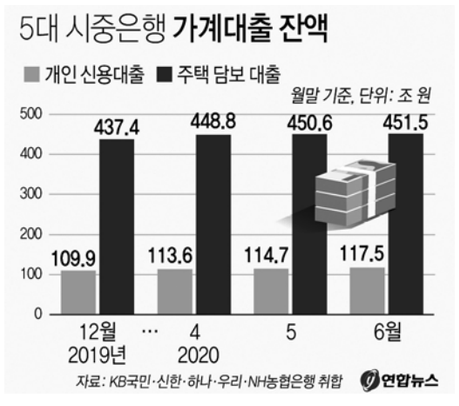
이는 전달보다 21.1%(498억원) 증가한 금액이며, 2016년 12월(3152억원) 이후 최고액이다.

지역 월별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 3011억원 줄어든 뒤 3월 2361억원(광주 1276억·전남 1085억), 4월 2859억원으로 두 달째 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광주는 7%, 전남은 7.2% 주택담보대출액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5.6%를 훌쩍 넘었고, 서울(7.8%), 경기(7.5%)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3~4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광주 16조2911억원·전남 9조1250억원 등 25조4161억원으로, 전달(25조1302억원) 보다 1.1%(2859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4월 가계대출은 광주 26조1641억원·전남 24조3750억원 등 50조5391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절반 이상인 50.3%를 차지했다.

4월 주택담보대출은 3년 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지만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신용대출로 자금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들어서는 저금리로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진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요가 더 늘 것이로 보이기 때문이다.

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주요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17조5232억원이다.

이는 전달 말보다 2조8374억원 급증한 규모다.

주요 은행 개인신용대출은 지난 3월에 전달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4월에는 증가 폭이 5000억원으로 주춤했다가 5월에는 1조원, 6월에는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차주들이 주요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이 반년 새 7조6000억원 뛰었다.

반면 주택자금 대출 증가세는 느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451조4558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8461억원 늘었다.

3월에는 전달 말보다 4조6000억원 급증한 데 이어 4월에는 4조5000억원, 5월에는 1조8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54조3885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4월에 전달보다 5조1000억원 급증한 데 이어 5월에는 3조6000억원, 6월에는 3조원가량 뛰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은행 전남본부, 소상공인·중기 위해 기금 7억 출연

2370억원 이상 대출 지원도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기금 7억2800만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10억원에 이어 두 번째 출연이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영업본부는 전남신보와 연계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총 2370억원 이상 대출을 지원했다.

서옥원 영업본부장은 "기금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이 돼 어려운 여건의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전남의 지역경제가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지역은행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서옥원·왼쪽 세번째)가 지난 1일 전남신보에 코로나19 경영안정 기금 7억2800만원을 출연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압류 금지' 농지연금 수급 전용 계좌 나온다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대상 확대도

채권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농지연금 수급 전용 계좌가 나온다.

농지연금수급 전용계좌는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에서 '농지연금지킴이'라는 이름의 통장으로 개설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일 개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들어가 다른 돈과 섞이는 경우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는 농지연금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은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을 입금할 수 있다.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길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약정을 체결할 때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은 고령·은퇴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해 청년농, 일반농, 전업농 등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청년 농업인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의 하한 면적 제한은 폐지한다.

농어촌공사 측은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할 수 있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2015년 1243건, 2016년 1577건, 2017년 1848건, 2019년 3209건, 올해 5월 말 1657건 등 총 1만6149건으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

한전 그룹사들, 대학생 홍보대사 비대면 발대식

한전KPS·한전KDN 등

한전 그룹사들이 지역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홍보대사를 선발하고 비대면 발대식을 진행했다.

한전KPS는 지난 1일 나주 본사에서 '2020년 한전KPS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사를 열었다. 발대식은 회사 홍보 영상 상영, 서포터즈 대표 선서, 임명장 수여에 이어 서포터즈 운영안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선발된 서포터즈는 3개월 동안 홍보영상(UCC) 제작,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참여 등 온라인 위주 활동을 한다.

한전KPS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2015년부터 총 120명의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을 서포터즈로 선발했다.

앞서 한전KDN도 2020년 대학생 홍보대사 '케미(한전KDN 미래)'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올해 홍보대사는 광주·전남지역 15명과 수도권 10명 등 총25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공모와 서류 심사를 거쳐 앞으로 3개월 동안 활동한다.

이번에는 직원-홍보대사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이 신설돼, 회사 직원이 직접 홍보대사들에게 회사 업무 소개, 입사 후기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홍보대사에게는 매달 활동비를 주고 활동이 끝나면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도 한다.

박성철 한전KDN 사장은 "이번 한전KDN 홍보대사 '케미'가 참신하고 감각적인 시각으로 국민과 밀접한 소통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보 24주년…보증공급 22만건 4조3000억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창립 24년 만에 보증공급 실적 22만여 건 4조3000억원을 달성했다.

광주신보는 지난 1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광주신보는 지난 1996년 7월 경기, 경남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설립됐다.

올해 들어 2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하며 1만8000여건에 달하는 보증을 신규 공급했다.

월별 코로나19 특례보증 공급 건수는 2월 72건, 3월 1839건, 4월 7806건, 5월 7488건, 6월 982건 등 총 1만8187건으로 집계됐다.

보증 규모는 5034억9700만원에 달한다. 1건당 보증규모가 2700만원 정도인 셈이다.

광주신보는 광주시 전입 예산 150억원을 재원으로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 3무(無) 사업을 통해 1년간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없이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변정섭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주신보가 소상공인과 더불어 함께 가는 행복 동반자로 광주시민에 각인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